

정신분열병 환자의  
단어 의미처리과정에 미치는  
집단 동조 반응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일 호

정신분열병 환자의  
단어 의미처리과정에 미치는  
집단 동조 반응의 영향

지도 이 홍 식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일 호

# 박일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년 6월 일

##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의 시작에서부터 끝마무리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 이홍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과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재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자문과 조언에 있어 김향희 교수님의 진심어린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연구 진행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신 최슬기 선생님, 이수영 선생님, 이지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과 항상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준 아내와 함께 논문 완성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자 씀

## 목 차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재료 및 방법	5
A. 연구대상	5
B. 연구방법	6
(1) 증상 및 집단응집력 평가	6
(2) 단어 및 사진 자극	6
(3) 동형이의어 단어의 우위의미 판단 과제	7
(4) 실험절차	9
C. 통계분석	9
III. 결과	11
A.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11
B. 단어의 우위의미판단 편향성	12
C. 행동반응 결과	13
D. 반응시간 결과	16
E. 동조경향과 반응시간, 집단응집력, 증상과의 상관관계	17

IV. 고찰.....	18
V. 결론.....	22
참고문헌.....	24
영문요약.....	27
부록-1. 동형이의어 및 의미단어 목록.....	28

## 표 목차

표 1.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11
표 2. 불일치 의견 조건시 동조반응율의 보정 평균값 (estimated marginal mean).....	13
표 3. 동조 경향에 대한 영향의 보정 평균값 (estimated marginal mean).....	14

## 그림 목차

그림 1. 우위의미판단과제의 자극 제시 순서 및 시간 .....	8
그림 2. 정상대조군과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의 소속 집 단과 타인의 영향 차이 .....	15
그림 3. 정상대조군 및 정신분열병 환자군 내 집단응집력 수준에 따른 소속 집단 및 타인의 영향 .....	15
그림 4. 의견일치 여부에 상관없는 동조반응시 평균 반응시간.....	17

<국문요약>

## 정신분열병 환자의 단어 의미처리과정에 미치는 집단 동조 반응의 영향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단어 의미처리과정에 있어 집단의 영향을 동조(conformity) 반응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임상실습조에 속한 의대학생 23명과 낮병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에 다니는 정신분열병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집단의 의견에 노출시킨 후 동형이의어(homograph) 단어의 우위의미를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소속 집단구성원 3명, 타인 3명, 단순 정보 3개와 의견이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조건 하에 동조반응을 보이는 반응율과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정상대조군의 경우, 의견 불일치 조건시의 동조 경향에 대한 소속 집단의 영향은 타인의 영향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견의 일치 여부와 무관한 동조 반응시간은 타인과 단순 정보에 비해 소속 집단의 의견에 동조할 때가 유의미하게 더 짧았다. 그에 반해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의견 불일치 조건시의 동조 경향에 대한 소속 집단의 영향이 타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컸고 의견 일치 여부와 무관한 동조 반응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소속 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동조 반응의 비효율성이 있어 집단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능력 면에서의 사회행동 장애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핵심되는 말 : 정신분열병, 사회적 동조, 집단, 의미처리, 의미판단, 동형이의어



정신분열병 환자의 단어 의미처리과정에 미치는  
집단 동조 반응의 영향

<지도교수 이 홍 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일 호

I. 서론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급성기 증상의 호전 후에도 지속되는 사회적 기능 저하는 정신분열병의 음성증상 또는 인지기능 장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인지기능의 문제가 정서처리과정, 마음 추론(theory of mind) 등을 포괄하는 사회인지(social cognition)를 매개로 사회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사회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3</sup> 이들 연구들은 대개 사회활동에 사용되는 개체의 행동적 요소보다는 인지기능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조(conformity)는 대표적인 사회행동으로서 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집단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사회적 측면에서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관찰될 수 있고 집단의 결정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행동이 개인의 결정보다 확률적으로 보다 나은 결정하는데

필요하기에 인간 고유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개인에 있어서는 집단의 가치관을 내재화한 경우 동조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관점과 집단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집단에 대한 친화 욕구나, 집단과 융화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위해서 또는 상대적으로 집단이 더 정확해 보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동조하기도 한다.<sup>4</sup> 동조는 집단치료에서 환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집단응집력(group cohesion)을 통한 소속감과 안정감은 환자의 자발적인 동조를 유발하기도 하고 집단압력(group pressure)이나 집단 잠재의식의 역동을 통해 유발되기도 한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재활은 낮병원 등 집단 환경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단을 통해 이들은 안정감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행동을 교정받고 있지만 집단을 통한 행동변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실험을 통한 동조는 Asch 에 의해 처음 증명되었는데, 이 실험에서 대상자에게 제시된 선들의 상대적 길이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는 과제에서 동참한 집단의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대상자도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5</sup> 이는 이후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실험 패러다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fMRI 를 이용한 지각 판단에 대한 사회적 동조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4, 5</sup> 그러나, 개인의 신념, 태도를 접고 집단에 순응하거나 집단에 의해 변화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더 흔하기 때문에 지각 판단보다는 의미 판단에 대한 동조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의미 처리과정의 왜곡을 보이고 이는 사고장애와 망상의 형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의미

점화(semantic priming) 패러다임을 통해 의미 편향성(semantic bias) 또는 의미 과점화(semantic hyperpriming)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6-8</sup> 의미 점화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점화자극(prime)이 관련 없는 것에 비해 표적(target)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나 동형이의어(homograph)를 이용한 과제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표적단어와 점화단어의 의미가 직접 상통하지 않더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의미 점화가 나타난다고 한다.<sup>8, 9</sup> 또한 단어와 관련된 연상들은 맥락(context)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sup>7, 10</sup> 현재까지 의미처리에 대한 동조 영향은 연구된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처리가 왜곡되어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동조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환자의 인지기능장애와 사회행동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사회인지에 대한 연구들은 마음 추론과 같은 사회인지의 한 개념(construct)을 측정하는 인지과제, 사람의 얼굴표정 사진 등을 이용한 실험 패러다임이 사회적 상황의 일면을 대변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사회적 상황의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개체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연구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체 간 상호작용을 통한 개체의 인지기능이 실제로 어떠한 지를 검증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동조 실험 패러다임은 실제 사회적 상황을 구현함으로써 사회인지 연구를 보완하는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현실 사회적 상황인 낮병원 집단 내에서 동형이의어에 대한 우위의미 판단과제 수행시 집단에 대한 동조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상인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대상으로 하여금 동형이의어 단어들의 우위의미 판단에 대한 같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결과를 본 직후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정신분열병 환자는 의미 편향성으로 인해 집단 뿐 아니라 단순 정보에 대한 동조 반응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 II. 재료 및 방법

### 1. 연구대상

정상대조군은 임상실습조의 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신촌 정신과 낮병원, 영동 정신과 낮병원, 경기도 광주시 정신보건센터에 다니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은 DSM-IV-TR<sup>11</sup>에 의거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환자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녀를 포함시켰고, 기타 정신질환, 신경과적 질환, 정신지체, 주요 신체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상 대조군은 정신과적 장애의 현병력 및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만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의 임상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만 연구에 참여시켰다.

## 2. 연구방법

### 가. 증상 및 집단응집력 평가

환자군의 임상 증상은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sup>12</sup> 를 이용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을 통해 평가하였고, 집단에 대한 태도 및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집성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대조군과 환자군 모두 자가보고식 설문지인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sup>13</sup> 를 작성토록 하였다.

집단응집력의 평가를 위해 두 군 모두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지인 ‘집단응집력 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sup>14</sup> 와 ‘우리성(We-ness) 척도’<sup>15</sup> 를 작성하게 하였다. 집단응집력 척도는 평소의 집단응집력과 집단과제 수행시 집단응집력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

### 나. 단어 및 사진 자극(stimuli)

단어자극으로는 2002 년도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sup>16</sup>에서 총 154 개의 동형이의어와 해당 열위(저빈도)와 우위(고빈도) 의미단어 1 개씩을 선정하였다.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해 1990 년대에 생산된 각종 문헌 및 구어 자료에서 추출한 자료로 추출 자료의 종수로 단어의 빈도수를 표기하고 있다. 열위 의미단어의 빈도(추출 자료 종수)가 10 개 이상이고 우위와 열위 의미단어의 빈도수 차이가 10 개 이상인 동형이의어와 그 의미단어들을 선정하였다. 33 개의 동형이의어 단어로 구성된 단어목록 A,B,C 를

만들고(부록-1) 30 개의 단어는 집단과제 목록에 25 개는 연습과제 목록에 사용하였다.

사진자극은 사람의 얼굴과 그림자 그림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얼굴사진은 표정을 짓지 않은 흑백 사진으로 동일한 크기와 화소로 모든 대상자들과 3 명의 타인 집단을 구성할 지원자 3 명을 촬영하였다. 그림자 그림은 사진과 동일한 크기로 사람 머리의 그림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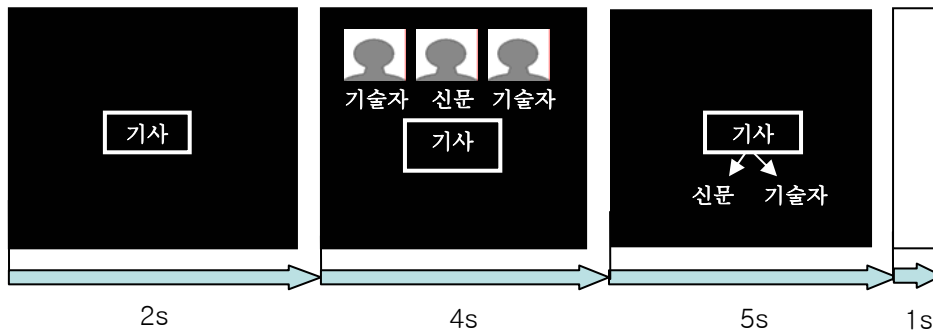
#### 다. 동형이의어 단어의 우위의미판단과제

동형이의어 단어에 대한 우위의미판단과제는 컴퓨터 모니터상 동형이의어 단어 1 개가 제시된 후 그 단어의 의미와 연관된 열위 의미단어 1 개와 우위 의미단어 1 개 중 ‘더 흔히 사용되는 의미’의 단어를 좌우 마우스버튼을 눌러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의미에 대한 개인의 편향성이 집단의 의견과 불일치할 때 집단에 동조반응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먼저 실험에 사용할 단어목록 A,B,C 에 대한 개인의 의미 편향성을 조사하였다.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대상자의 개별 의미 선택 자료를 이용하여 단어목록 A,B,C 의 약 50%(13:18 또는 18:13)의 동형이의어 단어에서 본과제 수행시 대상자의 선택과 불일치하는 집단 다수의 반응이 제시되게 본과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작성하였다.

본과제는 소속 집단, 타인, 단순 정보 과제로 구성하였고 동형이의어 단어 1 개가 제시된 후 3 명의 얼굴사진(소속 집단구성원 또는 타인 3 명) 또는 3 개의 그림자 그림과 함께 앞서 작성한

프로그램 패러다임에 따라 제시되었던 동형이의어 단어의 우위/열위 의미단어 3 개가 대상자와의 ‘의견 일치’ 또는 ‘의견 불일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외부 정보에 노출시킨 후 동형이의어와 해당 우위와 열위의미단어가 나타날 때 우위의미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점화 효과가 나타나는데 더 긴 시간을 요한다고 보고된 바 있고<sup>9</sup> 의식적인 수준의 의미처리가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여 본과제의 자극제시 시간은 자극을 의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우위의미판단과제의 자극 제시 순서 및 시간



반복수행으로 인한 학습효과, 특정 단어목록에서의 선택의 편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세 가지 본과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단어목록 A,B,C 를 부분 무작위로 할당하였고 의미단어 위치에 따른 좌우 선택의 편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각 군의 대상자 중 절반은 의미단어의 좌우 위치를 바꾸어 제시하였다.

과제 수행시 대상자들에게 이전 조사에서 소속 집단구성원들과 대상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화면에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과제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 중 사람들이 더 흔히 사용할 것 같은 의미단어를 선택’ 하는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 라. 실험 절차

먼저 대상자들에게 단어목록 A,B,C 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대상자들의 얼굴사진을 촬영하여 본과제 프로그램 패러다임을 작성하였다. 이후 집단응집력을 유발하기 위해 같은 집단의 최소 4 명의 대상자를 모이게 하여 집단과제로 동형어의어 단어목록을 주고 공동으로 우위의미를 판단하게 하였다. 집단과제 수행 후 개별적으로 소속 집단, 타인, 단순 정보의 세 가지 본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증상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시행하였다.

### 3. 통계분석

집단응집력이 동조반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대상자들의 집단응집력 척도 점수가 60 점 이하일 때 ‘낮은 집단응집력’ 과 60 점 이상일 때 ‘높은 집단응집력’ 수준으로 범주화하여 실험대상군과 함께 독립변수로서 분석하였다. 소속 집단, 타인, 단순 정보와의 의견 불일치 조건시 동조반응율은 의견 불일치 조건에서의 동조반응수를 의견 불일치 조건 자극의 횟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대상자와 집단의 의견이 일치할 때 그에 반하는 반응(독립반응)을 보이는 경우 집단에 대한 거부 또는 과도한 독립반응이라 가정하여 집단에 대한 동조 경향은 의견 불일치 조건에서의 동조반응율에서 일치 조건에서의 독립반응율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단순 정보에 대한 동조 경향을 통제 조건으로 보고 소속 집단/타인에 대한 동조 경향에서 단순 정보에 대한 동조 경향을 뺀 값을 동조 경향에 대한 소속 집단/타인의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실험대상군을 독립변수로, 단어목록 A,B,C 의 의미단어선택의 편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시행하였고 단어별 의미선택의 편향성에 대한 대상군 간 차이는 개별 단어에 대한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로 비교하였다.

각 과제별 의견 불일치 조건의 동조반응율과 동조반응시간의 대조군과 환자군 간 차이는 반응율과 반응시간 각각을 종속변수로하고 실험대상군과 집단응집력 수준을 독립변수로 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실험대상군 간 소속 집단과 타인의 영향에 대한 차이도 실험대상군과 집단응집력 수준을 독립변수로 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통해 확인하였고 소속 집단이 타인보다 동조 경향에 더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하기 위해 각 군 내 소속 집단과 타인에 대한 동조 경향에 대한 영향에 대해 대응 t-검증(paired test)을 시행하였다. 소속 집단, 타인, 단순 정보와의 의견 일치 또는 불일치 조건에서 동조반응을 보일 때 반응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군과 환자군 각각에서 대응 t-검증(paired t-test)을 시행하였다.

### Ⅲ. 결과

#### 1.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표 1.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정상대조군 (n=23)	정신분열병 환자군 (n=19)	$\chi^2 / t$	p
성별	남	12	9	0.096	0.76
	여	11	10		
나이		23.4 ± 1.2	31.5 ± 8.7	-4.09	<0.01
교육년수		16.8 ± 1.1	13.1 ± 1.7	8.70	<0.01
우리성 척도		107.2 ± 17.9	102.3 ± 20.3	0.82	0.42
집단응집력 척도					
	평소	62.3 ± 7.1	57.1 ± 9.8	2.01	0.05
	집단과제 수행 후	61.6 ± 7.6	56.8 ± 10.2	1.75	0.09
편집성 척도		36.6 ± 9.1	43.4 ± 13.8	-1.99	0.05
PANSS <sup>1</sup>					
	양성증상		14.2 ± 4.1		
	음성증상		17.7 ± 5.7		
	일반정신병리		31.5 ± 7.1		
항정신병약물 용량 <sup>2</sup>			972.2 ±		
			866.8		

<sup>1</sup>PANSS: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sup>2</sup>100mg 클로로프로마진 등가용량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은 표1과 같다. 4개의 임상실습소에서 24명의 연세의대 학생들과 신촌 정신과 낮병원(9명), 영동 정신과 낮병원(7명), 경기도 광주시 정신보건센터(4명)에서 20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모집되었다. 행동반응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학생 1명과 정신지체가 동반된 환자 1명은 대상군에서 제외되어 정상대조군 23명과 정신분열병 환자군 19명이 분석되었다. 두 군 간 성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나이가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 대조군은 환자군보다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우리성 척도 점수는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평소의 집단응집력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대조군이 환자군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집단과제 수행 후 집단응집력 척도 점수는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편집성 척도는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경향성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 2. 단어의 우위의미 판단 편향성

대조군과 환자군 모두 단어목록(A,B,C) 간 의미단어 선택의 편향성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두 군 간 개별 단어에 대한 의미단어 선택에서의 편향성은 단어목록 A 에서 1 개 단어로 ‘벌어지다’ 에 대하여 환자군은 63.7%가 ‘싸움’ 을, 대조군은 69.6%가 ‘틈’ 을 선택하였고 ( $\chi^2=4.50$ ,  $df=1$ ,  $p=0.03$ ), 단어목록 B 에서 1 개 단어로 ‘사원’ 에 대해 환자군은 78.9%가 ‘절’ 을, 대조군은 52.2%가 ‘회사원’ 을 ( $\chi^2=4.27$ ,  $df=1$ ,  $p=0.04$ ) 선택하였으며 그 외 단어들은 선택의 편향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편향성의 차이를 보인 2 개의 단어가 그 수가 적고 과제 간 단어목록 할당이 부분 무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분석시 제외시키지 않았다.

### 3. 행동반응 결과

소속 집단, 타인, 단순 정보의 영향을 보는 각 과제에서의 의견 불일치 조건의 동조반응율은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동조반응율에 대한 집단응집력 수준의 영향이나 두 군과 집단응집력 수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2).

표 2. 불일치 의견 조건시 동조반응율의 보정 평균값(estimated marginal mean)

	정상대조군 (n=23)	정신분열병 환자군 (n=19)
소속 집단 동조	0.34 ± 0.07	0.51 ± 0.08
타인 동조	0.34 ± 0.05	0.38 ± 0.07
단순 정보 동조	0.31 ± 0.07	0.44 ± 0.09

각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임.

공변량값 나이 27.1세, 교육연수 15.1년으로 분석모델이 계산됨.

동조 경향에 대한 소속 집단 및 타인의 영향에 대한 보정 평균값은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소속 집단 및 타인의 영향은 대조군과 환자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35)=4.51, p=0.02$ )(그림 2). 이때 나이( $F(2,35)=1.19, p=0.32$ ), 교육연수( $F(2,35)=1.74, p=0.19$ ),

집단응집력 수준( $F(2,35)=1.94, p=0.16$ ), 두 군과 집단응집력 수준 간 상호작용( $F(2,35)=2.35, p=0.11$ )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상자 간 효과 검증에서 타인의 영향( $F=0.09, df=1, p=0.77$ )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소속 집단의 영향( $F=4.34, df=1, p=0.04$ )은 유의미하였다. 또한 각 군 내 비교에서 정상대조군에서는 소속 집단의 영향과 타인의 영향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 $t=0.54, p=0.60$ ),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소속 집단의 영향이 타인보다 유의미하게 컸다( $t=3.08, p<0.01$ )(그림 2).

표 3. 동조 경향에 대한 영향의 보정 평균값 (estimated marginal m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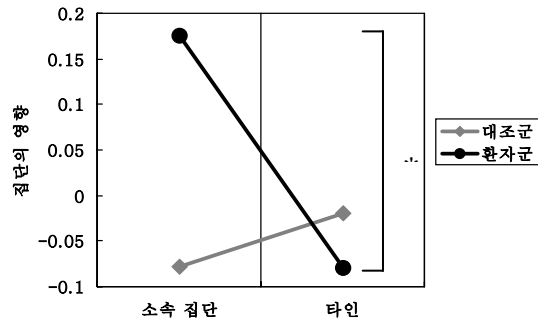
	정상대조군 (n=23)	정신분열병 환자군 (n=19)
<u>소속 집단의 영향</u>		
낮은 집단응집력	0.03 ± 0.07	0.17 ± 0.07
높은 집단응집력	-0.19 ± 0.07	0.19 ± 0.10
전체*	-0.08 ± 0.06	0.18 ± 0.07
<u>타인의 영향</u>		
낮은 집단응집력	0.05 ± 0.11	-0.08 ± 0.12
높은 집단응집력	-0.09 ± 0.12	-0.08 ± 0.16
전체	-0.02 ± 0.10	-0.08 ± 0.12

각 수치는 평균 ± 표준오류(standard error)임.

공변량값 나이 27.1세, 교육년수 15.1년으로 분석모델이 계산되었음.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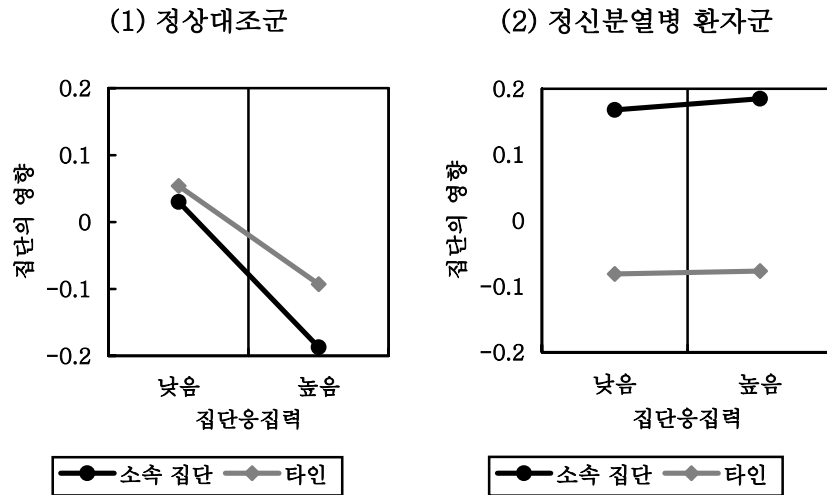
그림 2. 정상대조군과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의 소속 집단과 타인의 영향 차이



집단의 영향은 공변량값 나이 27.1세, 교육년수 15.1년으로 분석한 모델의 평균 보정값 (estimated marginal mean)임.

\* 소속 집단-타인 간 paired t-test상  $p < 0.05$

그림 3. 정상대조군 및 정신분열병 환자군 내 집단응집력 수준에 따른 소속 집단 및 타인의 영향



집단의 영향은 공변량값 나이 27.1세, 교육년수 15.1년으로 분석한 모델의 평균 보정값 (estimated marginal mean)임.

\* 소속 집단-타인 간 paired t-test상  $p < 0.05$

#### 4. 반응시간 결과

소속 집단과의 의견 불일치 조건에서 동조반응을 보일 때 반응시간은 정상대조군과 정신분열병 환자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나이, 교육년수, 집단응집력 척도 점수, 두 군과 집단응집력 척도 점수 간 상호작용의 유의미한 효과도 없었다(표 4).

표 4. 의견 불일치 조건시 동조반응 시간의 보정 평균값 (estimated marginal mean)

	정상대조군 (n=23)	정신분열병 환자군 (n=19)
<u>단순 정보</u>		
낮은 집단응집력	2.17 ± 0.30	1.55 ± 0.30
높은 집단응집력	2.42 ± 0.30	1.78 ± 0.42
전체	2.30 ± 0.26	1.67 ± 0.32
<u>소속 집단</u>		
낮은 집단응집력	1.62 ± 0.25	1.94 ± 0.26
높은 집단응집력	1.91 ± 0.26	1.78 ± 0.36
전체	1.76 ± 0.22	1.86 ± 0.27
<u>타인</u>		
낮은 집단응집력	2.10 ± 0.27	1.80 ± 0.27
높은 집단응집력	2.25 ± 0.27	1.49 ± 0.38
전체	2.17 ± 0.23	1.65 ±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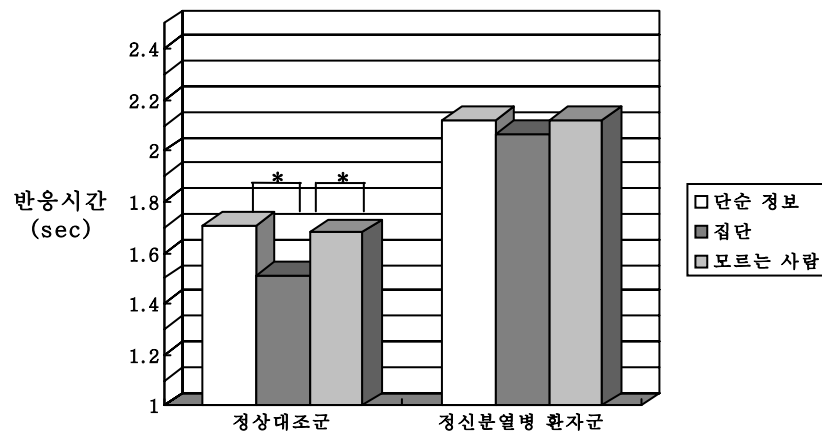
각 수치는 평균 ± 표준오류(standard error)이고 단위는 sec임.

공변량값 나이 27.1세, 교육년수 15.1년에서 분석모델이 계산되었음.

의견 일치와 불일치 조건 모두에서 동조 반응을 보일 때 반응시간은

정상대조군에서만 과제 간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4). 정상대조군에서 소속 집단에 노출되었을 때 평균 반응시간은 1.51 sec (SD=0.38)으로 단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평균 반응시간 1.71 sec (SD=0.38)이나( $t=2.12$ ,  $p<0.05$ )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 평균 반응시간 1.68 sec (SD=0.42)보다( $t=-2.33$ ,  $p=0.03$ ) 유의미하게 짧았고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 반응시간은 단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반응시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0.34$ ,  $p=0.73$ ) 그러나 정신분열병 환자군 내에서는 세 가지 과제의 동조반응 시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단순 집단과 단순 정보  $t=0.63$ ,  $p=0.54$ ; 타인과 단순 정보  $t=0.04$ ,  $p=0.97$ ; 단순 집단과 타인  $t=-0.50$ ,  $p=0.62$ )

그림 4. 의견일치 여부에 상관없는 동조반응시 평균 반응시간



\* paired t-test 상  $p<0.05$

## 5. 동조 경향과 반응시간, 집단응집력, 증상과의 상관관계



동조 경향에 대한 영향과 반응시간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정상대조군에서는 소속 집단에 대한 동조 경향에의 영향은 의견 일치 조건에서의 동조반응 시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0.42$ ,  $p<0.05$ ),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소속 집단에 대한 동조 경향에의 영향은 소속 집단에서 불일치 의견 조건시 동조반응 시간 뿐 아니라( $r=-0.59$ ,  $p<0.01$ ), 의견 일치와 불일치 조건 모두에서 전반적인 동조반응을 보일 때 반응시간( $r=-0.50$ ,  $p<0.05$ )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상대조군에서는 동조 경향에 대한 영향과 우리성 척도, 집단응집력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우리성 척도 점수 또는 평소의 집단응집력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 집단의 불일치 의견 조건시 독립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졌다.(우리성  $r=0.66$ ,  $p<0.01$ ; 평소 집단응집력  $r=0.54$ ,  $p<0.05$ )

PANSS의 하위척도점수들과 편집성 척도 점수는 동조 경향에 대한 영향, 반응시간과는 두 군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단, PANSS의 양성증상 항목 중 과대성 항목 점수는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 조건시 동조반응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62$ ,  $p<0.01$ ).

####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단어 의미판단시 소속 집단이 동조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대조군보다 동조 경향에 대한 소속 집단의 영향이 타인의

영향보다 컸으나, 대조군에서 소속 집단의 영향력과 타인의 영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속 집단과의 의견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반응시간은 정상대조군이 단순 정보나 타인의 의견에 동조할 때보다 빠른 데 반해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소속 집단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sch가 실험을 통해 구현한 동조 현상은 일관되게 재현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동조 경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고 하는데, 3세에서 17세까지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동조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대상자들에서 동조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sup>17</sup> 또한 사회적 동조는 동조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서양에서는 독립적인 행동을 개인의 개성으로 보고 존중하는 한편, 동양에서는 일탈된 행동으로 보기도 한다.<sup>18</sup>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서양화된 태도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본 연구의 정상 대조군 집단이 개성을 중시하는 청소년기 세대임을 감안하면 과제 수행시 집단과의 융화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조에는 정확성을 추구하고자 정보 동조(informational conformity)의 의도, 친화성을 추구하는 규범 동조(normative conformity)의 의도와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한다.<sup>4</sup> 본 연구에서의 과제에서는 정확성이 평가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과제의 목표나 성격상 정확성이 간접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는 동조 경향에의 영향이 집단응집력 척도나 우리성 척도 점수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이들 척도의 항목들이 정보 동조보다는 규범 동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확성과 함께 과제 특성상 ‘다수의 생각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물어봄으로써 독립적인 판단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었다. 평가를 받는 임상실습에 나온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목표를 집단과의 의견 일치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타 조원들보다 좋은 수행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독립적인 판단에 더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본 연구의 과제는 자극을 외현적으로 제시하였고 충분한 반응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의식적인 처리과정이 결과에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외현적인 결과는 소속 집단에 대한 동조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동조의 자동적인 처리과정은 동조반응에 대한 점화 효과로 나타났다. 동조는 점화를 통한 자동적인 연상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동조에 대한 한 점화 실험에서 ‘스킨헤드’와 같은 비동조, 또는 ‘회계사’와 같은 동조 관련 점화자극을 제시한 후 상대방의 객관적인 판단에 동조하는 지를 관찰하였을 때, 비동조 관련 점화시 동조반응이 적고 동조 관련 점화시 동조반응이 흔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4</sup> 본 실험에서 동조반응은 전반적인 동조반응시간의 단축으로 점화가 촉진된 것으로 보이며 타인이 중립적인 자극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의미 점화(semantic priming)에는 의미 표상의 자동적 활성화와 전략적 재생(strategic retrieval), 경쟁적 정보의 억제의 인지적 요소들로 구성된 어휘-의미 체계(lexical-semantic system)가 관여한다고 한다.<sup>19</sup> 정상대조군에서는 소속 집단에 대한 동조반응을 보일 때는 최소의 억제적 요소와 효율적인 전략적 처리과정에 의해 자동적 활성화가 일어나 반응시간이 짧아진다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조에 대한 fMRI연구에서 지각적 판단시 동조반응이 의식적이 수준보다는 지각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보고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단어 의미판단시 동조반응에 있어서 집단의 영향을 더 잘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상반된 결과로 태도 변화와 지각적

판단력에 대한 동조 과제를 정신분열병 환자와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전 연구들에서도 정신분열병 환자군이 동조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한 바 있다.<sup>20, 21</sup>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 이용한 지각적 판단과제와는 달리 의미 판단과제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는 의미처리과정의 왜곡이 있어 동조반응에 더 취약했을 수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전반적인 단어의미처리 능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열위의 의미처리 능력이 정상인보다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sup>10</sup> 즉, 열위의미에 중등도로 편향된 문장 맥락이 제시되었을 때 정상인은 열위 표적에만 점화 효과를 보이는 반면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열위와 우위 표적 모두 점화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 과점화는 정신분열병에서 맥락적 또는 의미적으로 무관한 정보를 억제하는 능력이 결핍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왔다.<sup>22, 23</sup> 따라서 우위의미 판단시 환자는 열위의미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독립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본 연구의 과제에서 환자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독립적인 판단은 어려워져 외부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고 추측된다. 이렇게 단어 의미판단에 있어 외부 영향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나 단순 정보보다 소속 집단에 영향을 더 받는 점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소속 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소속 집단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판단을 내릴 때의 반응시간이 ‘우리성’ 및 평소의 집단응집력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과제 수행시 환자들이 소속 집단원들과의 친화성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소속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동조 반응시간이 단순 정보나 타인에 대한 전반적 동조 반응시간과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소속 집단에 대한 동조로 전략적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음을 반영한다. 이는 집단 또는 사회적 동조를 통한 의사결정 또는 정보처리의 효율성 극대화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결핍되어 있어 집단활동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얻는  
잇점을 환자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정상 대조군과 환자군 간에 나이와  
교육년수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이에 따른 세대별 문화적 차이는 동조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상 대조군과 환자군 간의 동조 경향에 대한  
집단의 영향 차이에는 세대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군에서 내현적 처리과정이 반영되는 동조반응의  
반응시간에서 정상 대조군에서와 같은 집단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정신분열병에 의한 집단 동조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동조 반응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교육년수가 대등한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의미처리과정에  
있어서 집단의 영향을 받으나 효율적인 동조반응을 보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사회적 위축이  
단순히 대인관계에 대한 동기 저하나 대인관계를 통한 즐거운 경험의  
결핍의 결과 뿐 아니라 집단 활동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효율적인 전략적 문제해결능력의 저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단어 의미처리과정에 있어  
집단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의과대학 임상실습조 학생들과 낮병원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형이의어 단어의 우위의미판단과제에서 소속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른 동조 반응률과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대조군은 동조 경향에 대한 소속 집단의 영향은 타인의 영향에 비해 차이가 없었으나 동조 반응시간은 소속 집단의 의견에 따를 때가 짧았다. 그에 반해 환자군은 동조 경향에 대한 소속 집단의 영향이 타인에 비해 컸고 동조 반응시간은 차이가 없었다. 대조군 집단의 특성 및 정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과제의 특성 때문에 대조군에서는 동조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으나 환자군에서는 의미연상의 문제로 소속 집단에 잘 동조하나 그 효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인지재활이나 적응적인 행동교정에 있어 집단을 잘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 ‘다수결’에 따른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동조의 기능을 보면 정신분열병에서의 비효율적인 동조반응은 정신분열병 환자가 집단을 이용하거나 집단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데 있어 사회행동적 장애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동조반응의 기저에 깔린 사회인지기능의 장애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Sergi MJ, Green MF. Social perception and early visual processing in schizophrenia. *Schizophr Res* 2003;59:233-41.
2. Green MF, Olivier B, Crawley JN, Penn DL, Silverstein S. Social cognition in schizophrenia: recommendations from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research to improve cognition in schizophrenia new approaches conference. *Schizophrenia Bull* 2005;31:882-7.
3. Wynn JK, Sergi MJ, Dawson ME, Schell AM, Green MF. Sensorimotor gating, orienting and social perception in schizophrenia. *Schizophr Res* 2005;73:319-25.
4. Cialdini RB, Goldstein NJ.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 Rev Psychol* 2004;55:591-621.
5. Berns GS, Chappelow J, Zink CF, Pagnoni G, Martin-Skurski ME, Richards J. Neurobiological correlates of social conformity and independence during mental rotation. *Biol Psychiat* 2005;58:245-53.
6. Goldberg TE, Aloia MS, Gourovitch ML, Missar D, Pickar D, Weinberger DR. Cognitive substrates of thought disorder, I: the semantic system. *Am J Psychiat* 1998;155:1671-6.
7. Kumar N, Debrulle JB. Semantics and N400: insights for schizophrenia. *J Psychiatr Neurosci* 2004;29:89-98.
8. Nestor PG, Valdman O, Niznikiewicz M, Spencer K, McCarley RW, Shenton ME. Word priming in schizophrenia: associational and semantic influences. *Schizophr Res* 2006;82:139-42.
9. Moritz S, Mersmann K, Kloss M, Jacobsen D, Andresen B, Krausz M, et al. Enhanced semantic priming in thought-disordered schizophrenic patients using a word

pronunciation task. Schizophr Res 2001;48:301-5.

10. Salisbury DF, Shenton ME, Nestor PG, McCarley RW. Semantic bias, homograph comprehension, and event-related potentials in schizophrenia. Clin Neurophysiol 2002;113:383-95.
11. Association AP.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fourth edition,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12. Kay SR, Fiszbein A, Opler LA. The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 for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 1987;13:261-76.
13. Won HT, Lee HJ.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paranoia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5;14:83-94.
14. Horvath AO, Greenberg 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 Couns Psychol 1989;36:223-32.
15. Kim HS. The mediation of groupness perception and locus of control on the effect of stress upon job satisfaction and error behavior. Seoul: Chung-Ang University; 1991.
16. Cho NH. The survey of usage frequency of modern Korean language. Seoul: The National Academy of Korean Language; 2002.
17. Walker MB, Andrade MG. Conformity in the Asch Task as a Function of Age. J Soc Psychol 1996;136:367-72.
18. Bond R, Smith PB.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ment task. Psychol Bull 1996;119:111-37.



19. Gold BT, Balota DA, Jones SJ, Powell DK, Smith CD, Andersen AH. Dissociation of automatic and strategic lexical-semantics: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evidence for differing roles of multiple frontotemporal regions. *J Neurosci* 2006;26:6523-32.
20. Gill WS. Interpersonal affect and conformity behavior in schizophrenics. *J Abnorm Soc Psychol* 1963;67:502-5.
21. Marsella AJ. Conformity and psychopathology: a comparative study of conformity behaviors in manic-depressive, paranoid schizophrenic and normal populations. *J Clin Psychol* 1975;31:402-8.
22. Titone D, Levy DL, Holzman PS. Contextual insensitivity in schizophrenic language processing: evidence from lexical ambiguity. *J Abnorm Psychol* 2000;109:761-7.
23. Lecardeur L, Giffard B, Laisney M, Brazo P, Delamillieure P, Eustache F, et al. Semantic hyperpriming in schizophrenic patients: increased facilitation or impaired inhibition in semantic association processing? *Schizophr Res* 2007;89:243-50.

## Abstract

### The effect of group conformity response to the semantic processing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l Ho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ng Shick Lee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group on semantic processing in schizophrenia through conformity response. Twenty three medical school students from four clinical training groups and 19 schizophrenic patients from two day-hospital programs and one mental health center performed a semantic judgment task of the dominant meaning of a series of homograph words after exposure to opinions of the subject's group members, strangers and simple information which may or may not agree with the subject. The conformity response rate and the conformity response time were measured. The control subjec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group compared to strangers on the conformity tendency, however they performed faster in conformity response regardless of opinions.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group on the conformity tendency when compared to the effect of strangers. Response time of conformity response regardless of opinion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and stranger or information in the patient group. This finding suggests that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ay prefer their group in semantic judgment, while inefficient conformity response point to the dysfunction of efficient strategic problem solving skills using the group.

-----  
Key Words : schizophrenia, social conformity, group, semantic processing, semantic judgment, homograph

부록-1. 동형이의어 및 의미단어 목록

목록	번호	동형이의어	의미단어 1	의미단어 2
A	1	이상	비정상	완전함
A	2	장기	오랜기간	내장
A	3	사고	불행	생각
A	4	조정	조절	중재
A	5	지우다	낙서	짐
A	6	사설	신문	시설
A	7	이	이빨	숫자
A	8	복식	옷	경기
A	9	위	높다	위장
A	10	기	기운	깃발
A	11	시	시간	문학
A	12	시장	상설시장	책임자
A	13	단정	정리됨	판단함
A	14	시조	조상	시
A	15	맞다	틀림없다	맞이하다
A	16	자기	자신	사기그릇
A	17	무리	지나침	짐승때
A	18	신세	처지	폐끼침
A	19	고르다	뽑다	균일하다
A	20	적다	부족하다	쓰다
A	21	꺼지다	불	땅
A	22	말리다	빨래	싸움
A	23	울리다	종	아기
A	24	원고	글	소송
A	25	떡다	밥	귀
A	26	과장	직책	부풀림
A	27	발전	나아짐	전기
A	28	상	상장	책상
A	29	부인	아내	불인정
A	30	말	언어	동물
A	31	용기	용감	그릇
A	32	대기	공기	기다림
A	33	등	신체	조명
A	34	열	열기	숫자
A	35	모자	의류	가족관계
A	36	비행	날아다님	나쁜짓

목록	번호	동형어의어	의미단어 1	의미단어 2
A	37	이사	옮김	직위
A	38	때	시간	더러움
A	39	전선	전쟁	전깃줄
A	40	다리	신체	교량
A	41	멀다	길다	눈멀다
A	42	원수	복수	장군
A	43	벌어지다	싸움	틈
A	44	인상	올림	느낌
A	45	씨	성	씨앗
B	1	벌	죄	곤충
B	2	걷다	걸음	소매
B	3	비	물방울	묘비
B	4	떨치다	떨어지다	알려지다
B	5	깨다	깨나다	부수다
B	6	의식	인식	식례
B	7	밤	어두움	열매
B	8	여권	여행	여당
B	9	검사	조사	검찰
B	10	빠지다	물	머리카락
B	11	못	망치	연못
B	12	역	역할	철도역
B	13	전원	전체	전기
B	14	쓰다	적다	사용하다
B	15	뜨다	오르다	떠나다
B	16	주문	요청	주술
B	17	소	동물	작다
B	18	대사	연극	외교관
B	19	동기	이유	동기생
B	20	전기	진력	기록
B	21	종	품종	벨
B	22	참기다	물	문
B	23	지방	지역	기름
B	24	부대	군대	포대
B	25	지점	위치	점포
B	26	시집	시부모	책
B	27	부자	갑부	가족관계
B	28	요새	근래	성채

목록	번호	동형어의어	의미단어 1	의미단어 2
B	29	맡다	담당	냄새
B	30	무	식물	없음
B	31	연대	책임	시간
B	32	시도	행동함	행정구역
B	33	들다	들어가다	올리다
B	34	대상	상대	큰상
B	35	뒤지다	들추다	뒤쳐지다
B	36	뛰다	달리기	심장
B	37	정상	꼭대기	상태
B	38	지원	도움	대학
B	39	심사	조사	마음
B	40	보수	정치	대가
B	41	일기	일기장	일기예보
B	42	부리다	피	일꾼
B	43	점	반점	운수
B	44	사원	회사원	절
B	45	붓다	물	얼굴
C	1	부정	비리	부인
C	2	예	본보기	예의
C	3	시청	기관	보고듣다
C	4	익히다	기술	고기
C	5	바르다	곧다	묻히다
C	6	동	아파트	행정구역
C	7	선	줄	착함
C	8	성	성곽	이름
C	9	경기	스포츠	경제
C	10	양식	방식	먹을거리
C	11	소장	연구소	군대
C	12	쉬다	휴식	숨
C	13	정의	정당	뜻
C	14	수상	내각제	대회
C	15	달다	단추	무게
C	16	감정	기분	판정
C	17	방문	만남	문
C	18	인정	허락	인심
C	19	신부	결혼	천주교
C	20	싸다	집	값

목록	번호	동형이의어	의미단어 1	의미단어 2
C	21	병	질병	유리병
C	22	날	때	칼
C	23	면	표면	행정구역
C	24	사내	남자	회사
C	25	새다	새나가다	밝아오다
C	26	이르다	도착하다	빠르다
C	27	지르다	외치다	치다
C	28	가사	노랫말	집안일
C	29	전력	전기	능력
C	30	연장	늘림	도구
C	31	묻다	물어보다	들러볼다
C	32	절	사찰	예절
C	33	고문	심문	직책
C	34	수입	교역	소득
C	35	쓰다	글씨	모자
C	36	시점	한순간	관점
C	37	세대	동시대	집
C	38	열리다	문	열매
C	39	불법	어긋남,	불교
C	40	유산	재산	낙태
C	41	방위	국방	방향
C	42	시각	자세	시간
C	43	인사	예의	행정
C	44	지다	넘어가다	패하다
C	45	수용	받아씀	모아넣음